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성별	남성	나이	만 60세	직종	자동차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 동안 품질관리 및 도장 T/UP,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20년 1월부터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으며, 2020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감소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재직기간의 대부분을 차량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신너, 도료 등에서 노출 가능한 벤젠 등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 생각되어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군 제대(중장비 운전 수행) 후 1987년 6월 □사업장으로 입사하여 조립 및 품질관리(약 3년 9개월), 의장 T/UP업무(약 1년), 도장body검사(약 28년 10개월), 의장트림 조립작업을 수행하여 약 33년 4개월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무직 업무를 약 3년 9개월간 수행하였고 마지막 공정인 의장 트림 공정에서는 약 9개월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음 외 유해인자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991년 3월부터 의장 T/UP repair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하였으며, 약 28년 10개월간은 도장이 끝난 차체가 대피라인을 통해 건조되어 나온 후 품질관리를 하는 공정에서 육안 및 촉각 검사를 수행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웠으며 두통,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 1월부터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으며, 2020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감소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여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 급성전골수구성 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M3)을 진단받고 항암치료하였다. 특히 과거력은 없고, 가족 중 혈액암을 포함한 암 가족력도 없었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 혈색소 12.3 g/dL 소견 보였으나 2016년 14.7 g/dL, 2017년 13.5 g/dL 관찰되었다.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진술하였고, 동료 근로자는 과거 흡연자로 약 10년 전 금연하였으며 과거 음주자로 약 10년 전 술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0년생)은 60세가 되던 2020년 11월 24일에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 동안 품질관리 및 도장 T/UP,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1991년 3월부터 1년 동안 도장 T/UP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고, 이후 28년 10개월 동안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농도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